

HOLY HABIT MOVEMENT PART 2

4. 침묵 -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어떤 일이었으며 그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어 봅시다.

- 다니엘은 어떤 총리와 고관들보다 모든 면에서 능력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왕은 그런 다니엘을 크게 신임하여 나라일 전체를 그에게 맡기려 하였습니다(단 6:3).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다니엘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괴로운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일 세 번씩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왕을 찾아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서의 금령을 어긴 자는 사자 굴에 던져 넣는 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음모는, 다니엘에게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 ex. 직장에서 열심히 진행되던 중요한 프로젝트가 알 수 없는 회사의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던 일, 지인이나 학교 등 공동체에서 최근까지만 해도 잘 지내던 사람과 이유 모를 관계의 멀어짐을 경험,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왜곡되어 전달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오해가 생김.
- 한편,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당황스럽고, 억울하며, 과도한 자책감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염려와 무력감을 느낍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에 좌절과 두려움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대응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2. 앞으로 나에게 부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직면할 것인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적어 봅시다.

- 다니엘 또한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떤 변론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흥분하거나 좌절하거나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음해하려 하는 자들을 찾아가 따지거나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평소 자신이 하던 일을 그저 계속해 나갔습니다.

- 만약 그런 상황에서 나의 감정적인 대응이 앞섰던 순간들이 있다면, 다시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생각해 봅시다.

3. 나의 정당함을 항변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 다니엘이 억울한 상황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에 하던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단 6:10).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었기에 다리오왕의 조서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간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서 왕에게 달려가 지혜로운 말로 이 일의 전말을 밝히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순간 어떤 변론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감히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과 완전하신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신실하고 실수가 없으신 그 분을 신뢰하며 결국에 온전케 하실 그 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창조주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그 순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인간적인 대응이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닌, 오직 침묵하며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하기를 멈춰야 비로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만이 제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4. 감정이 북받치면 어딘가에 말로 쏟아 내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무작정 틀어 막기만 하면 마음에 병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감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❶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기(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억울함,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의 폭풍이 다가올 때 사람에게 토로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마음의 감정까지 고백합니다. 성경 인물 중 다윗도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시편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뢰기도 합니다(시 31:9). 신기하게도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이 아닌 혼자 생각할수록, 또 다른 이에게 말할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우리는 그 감정의 폭풍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습관처럼 기도해야 감정이 급변할 때에도 변함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어색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스스로도 희미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감정이 북받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선택보단 감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② 믿음의 동역자에게 기도제목으로 나누기

무작정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동역자에게 감정만이 아닌 그 일을 향한 준비된 기도제목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감정을 다스리기

감정이 크게 요동할 때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나의 삶의 기준인 말씀으로 나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내 이런 감정에 집중하지 않기 위해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찬양해야 합니다.

④ 무엇보다 감사하기

감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감사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감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합니다. 감사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오늘의 어려움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이 일을 역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5. 건강한 자존감(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품위를 지키려는 감정)이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평가되는 이 시대에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자존감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으로 여기실지 생각해 봅시다.

-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유일한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창 1:27). 또한 타인의 인정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잠 29:25).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빌 2:5-8).

1. 본문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다니엘은 어떤 말을 했나요?

- 다니엘은 사람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전에 하던대로 감사기도만을 드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침묵했습니다.

2. 사자 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은 어떤 말을 했나요?

-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단 6:16)라고 말할 때에도 다니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또한 이전에 자신의 세 친구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견고한 신앙으로 끝까지 침묵하며 자신의 입을 지켰습니다(참고구절, 잠 10:19).

3. 최근에 억울하거나 답답한 일이 있었다면 나눠 봅시다.

- ex. 학생: 시험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음(채점 기준이 불공정), 친구와의 오해(잘못된 소문), 단체 과제에서 부당한 역할 분배(지나치게 한 사람에게 분배된 과제로 팀플 목적과 맞지 않음), 부당한 교사나 교수의 태도(특정 학생에게 차별적 대우) 등
- ex. 직장인: 내가 한 성과를 다른 사람이 가로 챈, 정당한 이유가 아닌 부당한 인사평가, 억울한 업무 지시 등
- ex. 사업가: 고객이나 거래처의 부당 요구(계약 이행을 넘어서는 경우, 관례라는 이유로), 블랙 컨슈머 문제 등
- ex. 주부: 나의 희생이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들의 태도, 배우자의 무관심, 친정과 시댁에서의 관계 문제,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때(자녀와의 소통) 등
- 각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제목을 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4. 믿음의 사람이라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나눠 봅시다.

- 다니엘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침묵했습니다. 가장 할 말이 많은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들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태도는,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 대제국에 총리가 되었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 그가 이처럼 믿음의 사람답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룩한 기도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습관처럼 기도해야 위급할 때나, 평온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 그대로 “습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역사속에서 다니엘을 삼키려던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단 6:21-22), 애굽의 노예인 요셉을 총리로 세우사 사람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으며(창 50:20), 죄 없이 고난 당한 욥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이시고 그 이상을 넘치게 부어주셨을 뿐 아니라(욥 42:10),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수 6:20).